

작품 내용

제 목	여섯 개의 원기둥이 가르쳐 준 것
내 용	대학 신입생 시절, 내게 캠퍼스의 낭만은 사치에 불과했다. 잔디밭에 앉아 동기들과 어울리는 시간보다 당장 다음 달의 팍팍한 생활비를 마련하는 일이 훨씬 절박하고 시급했다. 그러던 중, 예술 토론 동아리 선배가 취업 준비로 떠나며 자신이 하던 미술 학원 아르바이트를 내게 물려주었다. 주된 업무는 원생들의 출석을 챙기거나 바닥에 흘날린 지우개 가루를 쓸어 담는 단순 보조 역할이었다. 육체적으로 고되지 않아 학업과 병행하기 좋았지만, 그곳에서 얻은 가장 큰 수확은 돈이 아니었다. 학생들의 '창작을 향한 순수한 열기'를 지켜보는 경이로운 경험이었다. 예술고등학교 진학을 꿈꾸며 캔버스 앞에서 창작의 고통을 기꺼이 감내하는 아이들, 까맣게 묻은 연필심 흔적만큼 매일 성장해 가는 맑은 눈동자를 보는 것은 신선한 자극이었다. 학원 문을 열 때마다 풍기던 4B 연필의 냄새는 내 마음마저 예술적 영감으로 물들이는 듯했다. 하지만 어느 날, 나는 학원의 어두운 이면과 마주하게 되었다. 이제 막 중학교 1학년이 된 어린 원생들의 미술 수행평가를 보조 강사인 내가 몽땅 떠맡게 된 것이다. 학원 측에서는 이른바 '학생 내신 관리'라는 명목하에 암암리에 학교 과제를 대신해 주고 있었다. 학생들은 당연하다는 듯 내 책상 위에 스케치북을 툭툭 던져놓고 갔고, 원장님 역시 "다들 아는 관행이니 뭐 어때? 대충 선만 그어줘서 점수만 받게 해"라며 가볍게 웃어넘기셨다. 결국 나는 모두가 퇴근한 텅 빈 미술실에 홀로 남아, 깊은 밤까지 여섯 장의 원기둥 연필 소묘를 공장 기계처럼 무미건조하게 완성해 나갔다. 마지막 스케치북을 덮던 그날 밤, 웬지 모를 서늘한 부끄러움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다. 텅 빈 도화지 위에 선을 긋고 명암을 쌓아 올리는 일은 사물을 카메라처럼 복사하는 행위가 아니다. 눈으로 관찰한 대상을 뇌로 해석하고, 손끝의 물리적 제어력과 개인의 감정을 더해 평면 위에 새로운 세계를 재구성하는 경이로운 상호작용이다. 과거 귀에 딱지가 앉도록 들었던 "그림에는 그린 사람의 고유한 지문과 생각, 땀방울이 고스란히 묻어난다"는 말은 바로 그 고통스럽지만 아름다운 재구성의 과정을 의미했다. 같은 서귀포 바다를 보아도 거장들의 화폭은 전혀 다른 세상을 빚어낸다. 이중섭 화백의 바다는 지독한 가난 속에서도 가족과 나누었던 따뜻한 기억, 설움 위로 희망의 새가 날아오르는 환상과 사랑의 색채로 채워져 있다. 반면, 변시지 화백의 바다는 제주의 거친 바람과 고독, 인간의 근원적인 쓸쓸함이 황토빛 화폭 위에서 처절하게 휘몰아친다. 똑같은 바람을 맞고 파도 소리를 들었음에도 두 화가가 그려낸 우주가 이토록 극명하게 달랐던 이유는, 대상을 바라보고 해석하는 예술가 '각자의 고유한 필터'가 달랐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날 밤 내가 억지로 그려낸 여섯 개의 원기둥에는 아이들의 시선도, 고민도, 서툰 땀방울의 흔적도 없었다. 오직 점수를 위해 급조된 내 기계적인 손놀림만이 유령처럼 맴돌았다. 마치 누군가의 답안지를 훑쳐보는 것 같은, 아니, 아이들이 스스로 세상을 관찰하고 표현하며 실패해 볼 소중한 권

리를 내가 송두리째 훔쳐버린 것 같은 기이한 죄책감이 밀려왔다.

며칠 후, 꼬리가 길면 밟힌다는 옛말처럼 기어코 사달이 났다. 내가 스케치 북을 대신 채워준 원생 중 두 명이 학교 미술 선생님께 불려갔다는 소식이 들었다. 제출된 여섯 개의 원기둥 소묘가 복사기로 찍어낸 듯 필압과 선 굵기까지 똑같았기에, 진짜 그림을 알아보는 선생님의 예리한 눈을 속일 수는 없었던 것이다. 선생님은 교무실에서 아이들에게 직접 연필을 쥐여주며 그려보라고 시키셨고, 허공을 헤매는 서툰 손놀림에 결국 거짓말은 그 자리에서 탄로나고 말았다.

이 소동은 분노한 학부모님들을 거쳐 원장님 귀에까지 들어갔다. 원장실로 호출된 내게 쏟아진 질책은 나를 더욱 아득하게 만들었다. "아무리 대리 과제라지만, 같은 원기둥이라도 선의 방향이나 명암 농도를 요령껏 다르게 해서 차별화를 줘야하지! 왜 그렇게 융통성이 없어?" 원장님의 그 호통은 내게 깊은 탄식과 거대한 깨달음을 주었다. '요령껏 차별화'를 꾸며낸다는 것. 그것이야말로 창작의 본질을 두 번 기만하는 것이었다. 억지로 선을 뽕개고 위장한다고 해서 그것이 각기 다른 가치를 지닌 '창작물'이 될 수는 없다. 그 알팍한 껍데기 속에는 대상을 향한 창작자의 진짜 시선과 영혼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다.

내가 아이들 대신 그려준 원기둥은 형태적으로는 완벽했을지언정, 손톱만큼의 꿈과 열정도 없는 빈 껍데기였다. 서툰 솜씨로나마 대상을 관찰하고 지우개로 수십 번을 뽕개며 자신만의 선을 찾아갈 아이들의 '스스로 고민하고 그려갈 권리'를 빼앗았다. 나아가 그 결과물의 주인이 되어볼 '창작의 쾌감'마저 앗아간 셈이었다.

그때의 감각 때문인지 지금도 일상에서 원기둥 모양 사물을 마주할 때면 그 날의 서늘함이 되살아난다. 화장대 위 둥그런 미백 에센스, 노트에 달린 꼬불꼬불한 스프링, 요가용 폼롤러, 감자칩 종이 용기, 발포 비타민 통, 다 쓴 휴지심, 식탁 위 참치 캔은 모두 원기둥 형태를 띠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일상에서 그것들이 모두 똑같다고 지적하지 않는다. 담고 있는 내용물도, 만들어진 목적도 확연히 다르기 때문이다. 같은 원기둥 형태일지라도, 각자의 쓰임새에 맞춰 제 몫을 하는 쓸모 있는 물건들일 뿐이다.

우리가 도화지 위에 그려낸 사과나 원기둥이 저마다 조금씩 다르게 뻗어져 있기에, 세상의 예술은 멈추지 않고 진화한다. 남을 속이기 위해 요령껏 꾸며낸 가짜 다름이 아니라, 투박하고 서툴지라도 세상을 바라본 시선과 머뭇거린 붓 터치가 오롯이 담긴 진짜 당신만의 그림을 그리기를 바란다.

세상에 단 하나뿐인 당신의 그 사소한 원기둥이야말로 예술가의 가장 고귀한 자존심이며,

우리가 서로의 저작권을 지키고 존중해야 하는 진짜 이유이다